

INCHEON CITY CHORALE

인천시립합창단 제191회 정기연주회

Hope Sings Eternal

희망의 노래

“Requiem for the Living”
by Dan Forrest



객원지휘 **Dr. Pearl Shangkuan**
(ACDA 미국합창지휘자협회 회장)

협연 오케스트라 라티프

Z. Randall Stroope | S. Barber | A. Parker | J. Poelinitz | D. Forrest

2025. 6. 11. WED 7:30PM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주최  **INCHEON**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시립합창단 공연문의 032-420-2784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예매 엔티켓 1588-2341 enticket.com **NOL ticket** 1544-1555 nol.interpark.com/ticket

Hope Sings Eternal

희망의 노래

삶의 깊은 울림과,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영원한 희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 (Hope Sings Eternal)”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는 음악을 통해, 고통과 절망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노래를 품은 명곡들이 펼쳐집니다. 고대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인간 내면의 깊은 아픔과 회복을 그려낸 Z. Randall Stroope의 <The Lamentations of Jeremiah>, 인류의 평화와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고요하고도 뜨겁게 담아낸 Samuel Barber의 <Agnus Dei>, 생명의 환희를 경쾌하고 밝게 울려 퍼뜨리는 영가, Alice Parker 편곡의 <Hark, I Hear the Harps Eternal>,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과 희망이 깃든 그곳을 향한 소망의 울림을 전하는 Josephine Poelinitz 편곡의 <City Called Heaven>, 그리고 삶과 죽음을 아우르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이번 정기연주회의 대작, Dan Forrest의 <Requiem for the Living>까지 각기 다른 색채의 작품들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어, 인천시립합창단이 삶의 고통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여정을 라티프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합니다.

특별히 이번 무대는, 세계 합창계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 펄 상관(Pearl Shangkuan) 교수가 객원지휘로 함께합니다. 상관 교수는 미국 미시간주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 음악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합창연맹(IFCM)과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 등 세계 유수의 합창 단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현재는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 차기 회장(President-Elect)으로서, 이미 전 세계 합창계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요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해석력과 깊이 있는 음악적 통찰로 세계 유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온 상관 교수는, 이번 인천시립합창단과의 만남을 통해 음악이 지닌 치유와 희망의 힘을 더욱 깊이 있게 전할 것입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91회 정기연주회 “희망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용기, 아픔과 회복을 향해 깊이 손 내미는 시간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무게에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희망이라는 불멸의 선율을 통해 우리를 빛나는 내일로 이끄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깊이 울리는 음악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요한 위로와 깊은 감동,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이 무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객원지휘 Dr. Pearl Shangkuan



펄 상관 박사는 (Dr. Pearl Shangkuan)은 세계 여섯 대륙에서 공연과 워크숍을 이끌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지휘자이자 강연자이다. 현재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있으며, 그동안 ACDA 중부지구 회장, 미시간주 회장, Chorus America 이사회 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레미상 후보에 오른 그랜드래피즈 심포니(Grand Rapids Symphony)의 합창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칼빈대학교 음악학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하였다.

2022년부터는 힌쇼 뮤직(Hinshaw Music)의 편집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earthsongs와 GIA에서도 각각 자신의 이름을 딴 시그니처 시리즈와 예배 합창 시리즈의 편집을 맡고 있다.

상관 박사는 카네기홀을 비롯한 미국 주요 공연장과 세계합창심포지엄 등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유럽, 아시아, 뉴질랜드, 남미 등지에서도 초청 지휘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합창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왔다. ACDA와 Chorus America 컨퍼런스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으며, 미국 주요 대학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으로도 초청되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All-State 합창단, ACDA Honor Choir, 주요 합창 페스티벌을 지휘했으며, 여러 신작 합창곡을 위촉·초연하고 있다. 그녀의 합창단은 ACDA 전국 및 지역 무대에 다수 초청되어 공연한 바 있다. 그간의 예술성과 리더십은 미시간 YWCA 예술상(2007), 미시간 ACDA의 메이나드 클라인 합창상(2013), 칼빈 대학교 최우수 교수상(2020), 전국대학합창조직(NCCO) 명예 평생회원상(2023) 등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

Program

The Lamentations of Jeremiah

Z. Randall Stroope

Agnus Dei *Adagio for Strings Op.11*

Samuel Barber

City Called Heaven

arr. Josephine Poelinitz

Hark, I hear the Harps Eternal

arr. Alice Parker

Requiem for the Living

Dan Forrest

1. Introit- Kyrie
2. Vanitas Vanitatum
3. Agnus Dei
4. Sanctus
5. Lux Aeterna



합창 인천시립합창단



협연 오케스트라 라티프



오르간 최지혜